

월드컵 결산

<3> 세대교체 실패

‘패기보다 경험’…노장들 중용

이탈리아 평균 28.3세…역대 최고령 우승팀

2010년 대비 한국 등 젊은 힘 수혈 과제로

‘노장을 위한 잔치’

지난 10일(한국시간) 대열전의 막을 내린 2006 독일월드컵 축구는 노장들의 활약이 눈에 띠어 두드러진 대회였다.

좋은 성적을 거둔 팀의 주전들을 보면 대부분이 4년전인 한일월드컵 때 팀을 이끌었던 선수들이다.

월드컵이 세계 최대의 축구 국가대항전이다보니 월드컵 성적표가 곧 그 나라 축구 전력을 반영하기 때문에 선수 구성에서부터 경험과 관록을 중시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젊은 힘’ 수혈에 실패하면서 세대교체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대회 우승팀인 이탈리아와 준우승팀 프랑스가 대표적인 예다. 두 팀의 대표팀 23명의 평균 연령을 보면 프랑스가 28.4세, 이탈리아는 28.3세로 전체 본선 진출 32개팀에 비해 상위권에 속해 있다.

결국 이번 대회는 이탈리아의 우승으로 44년만에 최고령의 우승팀이 탄생하는 기록을 세웠다.

지난 1962년 칠레 대회부터 10번의 대회를 치르는 동안 우승팀 평균 연령은 모두 28세 이하였다.

이처럼 노장팀들이 힘을 발휘하면서 적절히 세대교체를 이룬 뒤 독일월드컵을 맞은

팀들은 기대만큼 성적이 나오지 않았다.

평균 연령이 26.4세로 그나마 젊은 독일이 개최국 훌어드벤티지를 살려내며 준결승까지 올랐지만 스페인과 잉글랜드(이상 평균 연령 25.5세), 아르헨티나(평균 연령 26.2세) 등 대회 개막 전부터 우승후보로 거론됐던 팀들은 모두 16강 또는 8강 문턱에서 주저 앉았다.

이처럼 이번 대회 결과만 놓고 보면 노장과 신예의 차이는 극명하게 드러난다. 월드컵처럼 큰 대회에서는 역시 노장의 경험이 신예의 패기보다는 한 수 위라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나이가 많은 선수들이 평생 대표팀을 이끌 수는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한국을 비롯한 각 국가의 대표팀은 4년 뒤 남아공 월드컵을 대비한 중·장기 프로젝트와 활발한 세대교체를 통해 대표 선수 지원을 두텁게 하는 것이 새로운 과제가 되고 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지난 10일 월드컵 결승전에서 프랑스의 지네딘 지단(오른쪽)이 이탈리아의 마르코 마테라치(인터밀란)와 말싸움을 벌이다 가슴을 머물리로 들이받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 마테라치, 지단에 뛰어했기에…

테러리스트·여동생 모욕 등 세계언론 술한 추측 쏟아내

지네딘 지단의 뇌장 미스터리를 놓고 갖가지 추측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브라질 TV방송 ‘글로보’는 드화술 전문가를 동원해 지단이 10일(이하 한국시간) 베를린 올림피아 스타디온에서 열린 2006 독일월드컵 축구대회 결승전에서 마테라치와 말싸움을 하는 과정을 분석한 결과 “마테라치가 두 번이나 지단의 여동생을 매춘부라고 부르는 입술의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11일 보도했다.

또 프랑스의 인종차별 감시단체인 ‘SOS-라시즘(racisme)’은 이날 성명을 내고 “국제 축구계에 밝은 몇몇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탈리아 선수 마르코 마테라치가 지단을 ‘비열한 테러리스트’로 취급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인종차별 모욕 행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 국제축구연맹(FIFA)에 제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문제제기는 지단이 알제리 이민자 2세인 점과 연관된다.

이와관련, 마테라치는 이탈리아 ANSA 통신과 인터뷰에서 “그건 절대 사실이 아니다. 나는 그를 테러리스트라고 부르지 않았다. 난 무식하다. 그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말했다.

한편 영국 BBC는 이날 지단의 에이전트를 인용, “마테라치가 지단에게 매우 심각한 발언을 했는데 이에 대해 지단이 자세히 말하려 하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지단의 에이전트인 알랭 미글리아시오는 “마테라치가 뭔가 심각한 말을 했지만 지단은 그것이 뭔지 말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하지만 며칠안에 이에 대해 밝힐 수도 있다”고 전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국내영고시학원

“교원임용 강좌에도 질적 차이가 있습니다.”

초등교사, 중등교사, 보건교사, 유치원교사, 진은상인교사, 일정교사, 임축시원을 극복하고 다양한 학생들의 학습욕구를 해결하여면 우선 나아하고 정교한 학습カリ큘럼과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시스템 및 학생규모를 세운 역전이 갖추어 외상하고, 대로 우익의 죽고 강사진이 진증과 복별로 담당해야 합니다. 원내정 교육학의 교수진은 하루, 이들이 구사된 것이 아니라 수년간 수많은 학생들을 배출한 능력을 갖는 데서 입증된 최고 경사진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이제, 교원임용시험은 교수진이 죽고야 끝나.”

여름방학 특강 개강 7월 1일(현재 예약접수중)

- ▶ 교육학/국내영 선생
- ▶ 국어/최병해 교수
- ▶ 수학/임대성 교수
- ▶ 생물/김치우 교수
- ▶ 체육/김용호 교수
- ▶ 유아교육과정/임미선 선생
- ▶ 국어/최병해 교수
- ▶ 과학교육론/장영민 교수
- ▶ 지구화/박명운 교수
- ▶ 체육교육론/조남용 교수
- ▶ 초등교육과정/위재원 선생
- ▶ 국어교육론/마이운 교수
- ▶ 물리/장영민 교수
- ▶ 사회교육론/김형수 교수
- ▶ 미술/김성희 교수
- ▶ 영어/송우경 교수

전국 최강의 강사진 만을 모집합니다.

**교원임용 동영상 강의
에듀뷰넷**

http://www.eduvieview.net

생생한 출원경험을 원하는 시민, 원하는 충수에서 출원하세요! 수강 가능!

전국최고의 유망강사진 출점!

교육학 유아교육

미술

국어 영어

수학

체육

공통과학

일반사회

현대 성향학 강의중

문의 : (02)816-1646

**경찰의 꿈을 이루는 곳!
광주 김재규 경찰학원**

합격의 전당

노량진 김재규경찰학원이

광주에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 합격을 앞당기는 시스템

① 6개월회원제(59만원) - 이론+문제풀이를 2개월 수강하는 금액으로 6개월 수강 가능

오전이론+저녁이론강의+오후실전문제풀이 모두 수강 가능

② 1년회원제(79만원) - 이론+문제풀이를 3개월 수강하는 금액으로 1년 수강 가능

오전이론+저녁이론강의+오후실전문제풀이 모두 수강 가능

* 차별화 된 전문 교수진

경찰학개론 김재규 교수	형 법 조태업 교수	형사소송법 윤경근 교수
수 사 오수령 교수	영 어 오순이 교수	영 어 정보열 교수

합격의 영광 뒤에는 김재규경찰학원이 있습니다

KJA 김재규 경찰학원

KJA Kim Jae Gyu Police Academy

062)236-3112

www.police3112.net

보직 바꿔서 힘 좀 써보세

■ KIA 수비시스템 수정

‘마무리’ 장문석→‘선발’

‘미들맨’ 윤석민→‘마무리’

새용병 스캇→외야수

KIA는 당초 올 시즌 플로리다 산하 트리플A 앨버커키에서 3루수로 활약한 스캇의 보직을 그대로 살려줄 방침이었으나 팀 사정상 외야수 투입을 고려중이다.

KIA는 현재 3루수를 맡고 있는 이현곤이 제2루수로 옮겨주고 있는데ما 심재학, 이종범 등의 공백으로 외야수의 자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더구나 1m93, 90kg의 거구인 스켓이 과연 민첩한 플레이가 요구되는 3루 수비를 잘 해낼 수 있을까라는 우려도 한몫을 했고, 외야수 경험이 있어 외야수비에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스켓이 외야수로 뛰게 되면 KIA의 내·외야는 한층 안정된 수비진을 갖추게

된다.

스켓과 이용규가 불박이 외야수로 뛰고 나머지 한 자리는 조경환 손자환, 김원섭이 주전 경쟁을 벌일 전망이다.

내야진은 이현곤이 선발 3루수로 나서고, 흥세왕이 2루수, 김종국이 유격수를 맡고 1루는 장성호가 그대로 지킨다.

KIA는 타선에서도 중장거리 타자인 스캇의 합류로 타선의 무게감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IA의 이같은 대규모 보직변경은 주전들의 잊은 부상에 따른 부진한 성적 때문이다. 10일 현재 KIA는 4위 두산에 4경기 뒤진 5위에 올라있다. 팀득점 6위, 팀홈런 8위의 하약한 타선이 시즌 초반 상승세에 발목을 잡았다.

KIA는 전반기내에 4강팀 가운데 최소한 팀을 끌어내려야만 후반기의 공세를 노릴 수 있는 절박한 상황이다.

용병타자 스켓의 합류와 수비진의 새로운 개편으로 재출발하는 KIA호가 부활의 날갯짓을 펼 수 있을지 팬들의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11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여자프로농구 여름리그 시상식에서 MVP를 수상한 정선민(앞줄 왼쪽)과 외국인선수상을 수상한 스테파노바 선수(앞줄 두번째) 등 각 부문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에인절스 입단 정영일

9월부터 교육리그 참가

메이저리그 꿈을 안고 미국프로야구 LA 에인절스에 입단한 ‘초고교급 투수’ 정영일(18·광주 진흥고)이 오는 9월 에인절스 교육리그에 참가한다.

정영일의 아버지 정종호씨는 11일 “정영일이 오는 9월부터 한달여 일정으로 미국 애리조나에서 열리는 에인절스의 교육리그에 참가, 구단 관계자 및 선수들의 업무를 익히는 등 본격적인 미국 무대 적응 훈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정영일은 한인 야구 선수로는 최초로 메이저리그 드래프트 1라운드 전체 25번으로 에인절스에 지명된 포수 최현(18)과 처음 상봉할 것으로 보인다.

계약금 135만달러에 계약한 최현은 지난 달 17일 텁파노 이동, 신인 드래프트 1, 2년 차 선수들이 뛰는 리그인 ‘루키 볼’에 참가하고 있고 장례 둘 빅리거로 승격된다면 사상 첫 한국인 배터리가 탄생한다.

반면 정영일은 취업 비자를 받는 내년 시즌 이전에 투키리그에서 뛸 수 없다.

정영일은 이날 대구에서 개막한 대봉기 대회에 출전, 오는 13일 유신고와 첫 경기에 선발 등판할 예정이며 다음달 8일 막을 올리는 봉황대기대회 참가를 끝으로 올해 전국 대회 일정을 마친다.

/박진표기자 lucky@

국내영고시학원

“교원임용 강좌에도 질적 차이가 있습니다.”

초등교사, 중등교사, 보건교사, 유치원교사, 진은상인교사, 일정교사, 임축시원을 극복하고 다양한 학생들의 학습욕구를 해결하여면 우선 나아하고 정교한 학습カリ큘럼과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시스템 및 학생규모를 세운 역전이 갖추어 외상하고, 대로 우익의 죽고 강사진이 진증과 복별로 담당해야 합니다. 원내정 교육학의 교수진은 하루, 이들이 구사된 것이 아니라 수년간 수많은 학생들을 배출한 능력을 갖는 데서 입증된 최고 경사진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이제, 교원임용시험은 교수진이 죽고야 끝나.”

여름방학 특강 개강 7월 1일(현재 예약접수중)

- ▶ 교육학/국내영 선생
- ▶ 국어/최병해 교수
- ▶ 수학/임대성 교수
- ▶ 생물/김치우 교수
- ▶ 체육/김용호 교수
- ▶ 유아교육과정/임미선 선생
- ▶ 국어/최병해 교수
- ▶ 과학교육론/장영민 교수
- ▶ 지구화/박명운 교수
- ▶ 체육교육론/조남용 교수
- ▶ 초등교육론/김동현 교수

전국 최강의 강사진 만을 모집합니다.

**교원임용 동영상 강의
에듀뷰넷**

http://www.eduvieview.net

생생한 출원경험을 원하는 시민, 원하는 충수에서 출원하세요! 수